

< 토끼와 거북이 >

옛날 아주 먼 옛날에, 토끼와 거북이가 살고
있었습니다. 토끼와 거북이가 사는 아름다운
이 마을에 원숭이, 개, 고양이, 사슴, 너구리, 새
등등 여러 동물들도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.
어느날, 민첩하고 재빠른 토끼와 느린
거북이가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.

토끼: 흠... 저게 누구야? 느림보 거북이잖아? 인사나 해볼까...?

거북이: 토끼야, 안녕? 잘 지냈어?

토끼: 니가 무슨 상관이야? 이 느림보 거북이 주제에! 흥!!

거북이: 뭐? 내가 느림보 거북이라고?

토끼: 느림보래요~ 거북이는~ 느림보래요~ 하하하하하

거북이: 좋아, 내가 느림보 거북이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겠어. 토끼 너! 나랑
달리기 경주 하지 않을래?

토끼: 너랑 달리기 경주? 하하하하하 좋아. 어디 누가 이기는지 두고보자 거북아!

그렇게 토끼와 거북이는 달리기 경주를하기로 약속한 뒤, 다음날 경주를
하기로 한 장소에 모였습니다. 그 뒤에는 다른 동물 친구들도 토끼와 거북이의
경주를 구경하기 위해 서있었습니다. 토끼와 거북이는 출발선 앞에 섰습니다.
원숭이가 심판이 되어 토끼와 거북이의 경주를 봐주기로 했습니다.

원숭이: 토끼, 거북아! 너희 모두 준비 되었니?

토끼: 응, 준비되었어. 거북이 너는 준비 되었니?

거북이: 물론이지!

원숭이: 좋아. 그럼 준비! 출발!

경주를 시작한 뒤 얼마되지 않아 토끼는 저만큼 앞서서 달리고 있고, 거북이는 땀을 뻘뻘 흘리며 열심히 기어가고 있습니다. 저 멀리서 동물 친구들이 토끼와 거북이를 응원하는 소리가 들립니다.

사슴: 토끼 이겨라! 토끼 이겨라!

너구리: 거북이 이겨라! 거북아 달려!!

새: 거북아, 할 수 있어

열심히 달리고 있던 토끼는 잠시 나무 밑에 쉬어 가기로 했습니다. 그러나 토끼는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. 그러는 사이, 거북이는 열심히 기어서 결국 토끼가 자고 있는 나무 밑을 지나치게 되었습니다.

토끼: 흥! 내가 1 등이야. 잠시 쉬었다가도 거북이는 따라오지 못할거야. 1 시간만 낮잠 좀 자야겠다. 아~~~함..

거북이: 하하하하.. 토끼녀석, 나를 느림보 거북이라고 놀렸겠다. 내가 이제 1 등이란다 토끼야!

토끼: 아니!! 잠시 쉬어간다는게 1 시간이나 지나다니.... 어라? 거북이가 이겼잖아?

토끼가 낮잠을 자는 사이, 거북이는 도착선에 도착하고 말았습니다. 거북이는 쉬지 않고 열심히 경주를 마쳤습니다. 그리하여 토끼보다 빨리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. 하지만 토끼는 열심히 달렸지만, 중간에 꾀를 써 결국 거북이에게 지고 말았습니다.

거북이는 저 멀리 보이는 토끼를 보며 흐뭇해 했습니다.